

##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주 특강



### “中企 살아 남으려면 장인정신 가져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인정신을 가지고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주최로 3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혁신포럼’에 참여한 윤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는 기업경쟁력의 원천이자 생존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기술은 ‘미래를 위한 보험’과도 같으며 경쟁우위의 원천은 인재”라며 “우물안 개구리식의 국내 중심 사고와 행동으로는 국제 경쟁에

#### 大-中企는 공동운명체

서 생존하기 어렵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과 품질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은 윤 부회장의 지론 가운데 하나다. 이같은 지론을 반영하듯,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모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모토로, 중장기 전략(2004~2008년)을 수립해 협력사의 경쟁력 확보를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장 선진화, 핵심설비와 부품의 자체생산, IT 인프라 등에 자금을 무자비로 지원하고 6시그마, 3D-CAD 등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과 미래경영자 후보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 부회장은 “정부도 자금·인력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자체의 혁신노력

#### 경쟁력 원천은 우수인재

과 정부정책, 대기업의 상생협력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부회장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국제화된 우수인력 없이는 기술개발도 힘들고 기업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10 광주일보 제17592호 2006년 11월 3일 금요일

<b>주가</b>	<b>환율</b>	<b>금리</b>
+7.34 1,381.69 (코스피지수)	+0.05 939.00원 (원/달러)	-0.04 4.62%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95.40 (+0.70)	
다우(1일)	12,031 (-0.41)	
나스닥(1일)	2,334 (-1.37)	
닛케이	16,375 (-0.15)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25엔 (-0.35)	
유로 달러 환율	1.2753달러 (-0.13)	
3년만기 회사채	4.93% (-0.04)	
플러그	4.45% (-0.02)	

### “경제 활성화 위해 세무조사 자제”

#### 권춘기 광주국세청장 상공인 간담회

권춘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 “수출채산성 악화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안한 납세환경’을 적극 실천하겠다”면서 ▲재난피해지역 납세자 및 경영애로기업 지원강화 ▲채납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채납정리 ▲영세납세자의 소액 불복청구사건 적극구제 ▲현장과견청문관제 적극운영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산업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청장은 홈택스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눈높이에 맞는 세금관련 ‘e-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수출자금 지원 받으세요”

#### 15일까지... 광주시 15억 용자

광주시는 2006년도 수출진흥자금 용자 지원을 15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오는 15일까지 대상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광주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2005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나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등이다.

용자금은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체당 3억원 이내, 연리 4.0%로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문의 062-613-3760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박찬수 광전엔지니어링대표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매진할 것”

#### 공기조화산업 기술 서비스

#### 11명 직원 올 매출 10억 눈앞

“그동안 축적된 설계·진단능력을 토대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해 국내 공기조화산업과 의료환경산업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주)광전엔지니어링(광주테크노파크) 박찬수(47)대표가 2일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는 ‘10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받았다.

지난 2002년 설립된 광전엔지니어링은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설계·감리·TAB(시행·조정·평가) 등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04년 벤처기업 등록, 2005년 이노비즈 기업인증 등을 혁신기술 분야에서 ‘작은 거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대표는 “최근 개발한 ‘클린부스’는 사스(SARS)나 조류독감 바이러스, 또는 병원내 감염사고 등에서 작업에 대한 성공적으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 올 상반기에는 실용신안등록한 기술로 산학연 협력기술사업자로 선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10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2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박찬수 대표, 장순호 중기청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했으며, 특허등록된 ‘클린부스’ 기술은 신기술아이디어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기술 분야에서 ‘작은 거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대표는 “최근 개발한 ‘클린부스’는 사스(SARS)나 조류독감 바이러스, 또는 병원내 감염사고 등에서 작업에 대한 성공적으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 올 상반기에는 실용신안등록한 기술로 산학연 협력기술사업자로 선

정했으며, 특허등록된 ‘클린부스’ 기술은 신기술아이디어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기술 분야에서 ‘작은 거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전엔지니어링은 향후 에너지와 환경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11명의 직원을 보유한 광전엔지니어링은 2004년 매출 4억7천400만원, 2005년 4억9천400만원에 이어 올해는 10억원의 매출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 ‘빛고을벤처조합’ 부실 운영

#### 투자사 부도·주식평가 감액...18억 손실

광주시민들의 혈세가 포함된 공공펀드가 투자회사의 부도 등으로 부실 운영돼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등 적자를 보고 있다.

2일 광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광산업 관련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40여억원 규모의 공공펀드를 ‘빛고을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다. 광주시(5억2천만원)·산은캐피탈(20억원)·한국산업은행(15억원) 등이 출연해 6개 업체에 28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도와 주식평가 감액 등으로 모두 18억4천만원을 손해를 보는 등 장부 가치가 10억1천만원에 불과하다. 투자업체중 1곳은 부도 뒤 문을 닫았고, 4곳은 사업부진으로 감액, 1곳만 투자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전자과 측정이 업체인 P사의 경우

2002년 7억2천만원을 투자했으나 2년만에 회사의 부도로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2억5천만원을 투자한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업체인 B사는 사업부진으로 달랑 1천만원만 남았으며 3억원을 투자한 I사도 5천600만원에 불과했다. 투자업체중 6억원 투자한 S사만 투자금액을 그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하지만 투자 기업중 내년에 코스닥에 상장 예정인 기업 등이 있어, 올 연말이 기한인 한 이 펀드를 2년 더 연장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벤처펀드의 특성상 투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08년까지 2년 더 연장 운용해 코스닥 상장 예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광양제철소 3고로 생산 5,000만 달성

광양제철소 3고로가 지난달 30일 고로에 화입(火入)을 시작한지 15년 11개월(5천809일)만에 셋째 누계출산량 5천만 생산을 달성했다.

광양제철소 3고로의 세계 최단기간 기록갱신은 종전 광양 2고로가 지난 2004년 9월에 기록한 16년 2개월보다 약 3개월 빠른 기록으로 셋째 누계 출

산량 5천은 승용차 5천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지난 2005년 국내자동차 생산량이 완성차 기준 370만대가 생산됐고 앞으로 자동차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향후 10년 이상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임대사업자 & 직원 모집**

2006년 11월 3일 금요일

1. 임대사업자 모집: [상세 내용]

2. 직원 모집: [상세 내용]

문의: 062-613-3760

**홍스홈**

www.hongshome.kr

이태리가구 전문점

● 수납공간: [상세 내용]

● 디자인: [상세 내용]

● 가격: [상세 내용]